

중세스페인어의 Objeto-Verbo-Sujeto 어순에 관한 고찰

조 은 영
(서울대 강사, 스페인어학)

1. 서론

동사의 논항을 중심으로 어순을 유형학적으로 규정하는 시도는 스페인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게 현실이다. 스페인어어순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SVO어순과 자유어순이 그것이다. 하나의 언어현상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어순 문제를 다른 유럽어와 관련한 유사성과 차이점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었는가에서 비롯된다. 자유어순으로 판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가 자유롭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라틴어와 비교할 때 문장 구성성분의 배열이 스페인어에서 더욱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가령 고대스페인어가 갖게 된 새로운 통사적인 제약은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더이상 분리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동사가 문미에서 문중으로 이동함으로써 서로 다른 통사적 기능을 가진 명사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 구성성분이 자유롭게 배열된다는 주장

은 필연적으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가치를 떨 수밖에 없다. 영어나 불어에 비해 스페인어가 자유로운 어순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의 위치가 매우 자유롭다는데 있다. 그러나 다른 논항을 검증하지 않은채 주어의 위치만 가지고서 어순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형화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어를 자유어순으로도 SVO로도 정의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위치에 논의를 국한시켜 보면 이 언어가 언제나 VO어순을 갖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스페인어를 SV 또는 VS라기 보다는 VO어순을 가진 언어로 분류한 Lehmann(1975)이나 Adams(1976)의 생각이 타당하게 들린다.

한편 스페인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순이 SVO, VSO, VOS, OVS 등 4가지라고 주장한 Gili y Gaya(1961)의 생각은 정상어순과 강조어순을 구분하지 않은데서 비롯한다. 목적어의 무표적 위치는 동사 뒤이고 강조, 즉 초점화될 경우에만 동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어순상 특징이 중세스페인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중세와 현대라는 두 공시대 사이의 비교를 통해 연구해 보는 일은 우리에게 던져진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 스페인어의 통사적 특징을 목적어 위치를 통해서 규명하고 나아가 현대 스페인어와의 차이점을 관찰하여 어순변화라는 통시적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2. 현대스페인어에서 목적어의 무표적 위치

현대스페인어의 문장 구성성분 위치에 관한 Fontana(1993)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들의 위치는 그리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It is often said that Spanish is a language with a rather flexible

word order, [...] As for the relative positions occupied by object NPs, object and adjunct PPs, and various VP modifying elements, careful consideration forces us to conclude that word order in Modern Spanish is not as flexible as it might seem at first. [...] Objects, non-finite verb forms, and most adverbial and PP adjuncts cannot occupy preverbal positions in Spanish, whether or not the subject precedes the verb" (Fontana, 1993: 55-56).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목적어는 문장의 어느 곳에도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 (1) a. Juan compra un libro.
- b. El libro no lo quiere Juan.
- c. A mí me gustan las manzanas.

한편, (1)과는 반대로 (2)의 문장은 모두 비문이다. 만약 동사 앞으로 전치된 목적어가 초점화될 경우 (3)처럼 완벽하게 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 (2) a. *Una bonita casa ya había vendido mi primo.
- b. *A los alumnos quiere examinar la profesora.
- (3) a. UNA BONITA CASA ya había vendido mi primo.
- b. A LOS ALUMNOS quiere examinar la profesora.

이러한 초점화 현상은 목적어에만 한정되는게 아니라 다른 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얻어지는 문장은 (4)-b와 (5)-b에 나타나듯 모두 강조구문이 된다:

- (4) a. *Mostrárselo querían los chicos a los padres.

b. MOSTRARSELO querían los chicos a los padres.

(5) a. *En primavera visitó Leningrado.

b. EN PRIMAVERA visitó Leningrado.

위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를 제외한 요소가 동사 앞에 출현하면 그 문장은 강조 어순을 갖으며 이 요소들은 “유표적 초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상어순의 문장은 “무표적 초점”을 갖게 된다. 가령 “Voy a comprar un paquete de leche”, “El tren ha salido a las tres de la mañana”, etc.¹⁾에서 밑줄로 표시된 모든 요소는 무표적 초점이다. “초점”은 정보전달이란 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칭한다. 문장의 여러 성분소들 중에서 어떤 것을 초점으로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화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요소든 초점이 된다. 화제, 논평, 초점 등의 화용적 개념 간의 관계는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

(6) [[Los libros]화제, [los leyó JUAN]논평]

초점

(7) [LOS LIBROS leyó Juan]논평

초점

정상어순을 갖는 문장 (6)이 “화제 + 논평”으로 구성된 반면 강조어순을 갖는 (7)에는 화제가 결핍되어 있다. 초점인 “LOS LIBROS”은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이동했는데 이 이동범위는 동사 “leer”의 서술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²⁾ 그러므로 초점의 정상 위치는 이동 전

1) Pinkster, H.(1990) y 김한상(1997)에 의하면 문장의 첫번째 자리는 “화제”뿐만 아니라 “초점”을 위한 자리이다.

위치인 문미가 된다. 이리하여 문두에 나타나는 초점을 “유표적 초점”, 문미에 나타나는 초점을 “무표적 초점”이라고 한다.

화제를 “문장이 말하고 있는 어떤 대상”, 논평을 “화제에 대해서 말해진 것”이라고 각각 정의할 때 문장 (6)에서 다음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전체 문장이 다루려고 하는 대상은 주어인 “Juan”이 아니라 “los libros”이며 후자가 바로 화제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문장 기능적, 화용적 측면에서 정의된 화제는 구조적 개념인 주어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목적어 위치라는 본래 문제로 돌아가서, Lehmann이나 Adams가 분류한 바처럼 현대스페인어는 VO유형의 언어라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목적어의 문두출현은 문장 전체를 강조구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두에 오는 모든 목적어가 문장의 초점화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좌측전위된 목적어는 예외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좌측전위구문에서 화제화된 목적어는 문두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초점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목적어는 문장 내부에 자신과 통사적,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clítico의 존재를 요구한다. 이 현상을 화제의 “대명사적 복사”(copia pronominal)라고 한다. 다른 한편, 부사구나 부사절 또한 화제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들의 위치도 좌측으로 전위된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문두이면서 문장 외부(exterior al SC)이다.³⁾ 그런데 목적어의 화제화는 주어의 화제화에 비해 문법적 제약을 더 받는 편이다.

2) Givón(1990)에 의하면 문장 (7)은 “Y-movement”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주어의 도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게 스페인어라면 영어는 주어도치를 강제하지 않는 언어이다.

3) 모든 부사(구)가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사의 논항이 되는 부사(구)는 동사와 함께 논평부를 구성하므로 절대로 화제화되지 않는다. 가령, “*A mi casa, vino Juan”는 비문이지만 “A MI CASA vino Juan”이나 “Juan vino a mi casa”는 적문이다. 두개의 적문 중 첫번째 문장은 초점화된 것이고 마지막 문장은 정상어순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사(구)는 동사나 전체문장에 대한 수식 범위에 따라 논평이 될 수도 화제가 될 수도 있다.

(8) a. Hablando de París, esa ciudad siempre me da ilusión.

b. París siempre me da ilusión.

(9) a. A María, la echo de menos.

b. *A María echo de menos.

문장 (8)-a, b에서 “París”는 각각 유표적 화제와 무표적 화제로 기능하고 있다.⁴⁾ 한편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어는 유표적 방법에 의해서만 화제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스페인어에서 목적어의 화제로서의 실현은 유표적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것을 “Objeto, clítico+Verbo”구문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한편 문장 내부에 clítico에 의한 복사없이 문두에 나타난 목적어의 존재(OVS)는 강조어순을 반영하며 이때 목적어는 초점이 될 것이다. Hernanz y Brucart(1987)는 초점이 문두에 와서 문장이 강조어순을 반영할 때 주어의 도치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다음 예문에서 문두에서 초점화된 목적어가 주어의 도치를 유발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0) a. UN ABRIGO DE VISON llevó su prima.

b. *UN ABRIGO DE VISON su prima llevó.

c. EN PRIMAVERA aprobará Juanjo.

d. *EN PRIMAVERA Juanjo aprobará.

이와는 반대로 좌측전위구문에서의 주어도치는 현대스페인어에서 강제

4) 유표적 화제란 좌측전위 구문에 나타나는 화제를 가리키고 무표적 화제란 정상어순을 가진 모든 문장에 나타나는 화제를 가리킨다. 후자의 경우, 화제는 문두에 위치하지만 동사의 서술범위 내부, 즉, 문장 내부의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무표적 화제는 영어에서 동사 앞에 나타나는 목적어, 부사(구), 주어에 해당하며 화제 표시자로 불리는 “en cuanto a”, “hablando de” 등을 따르는 요소는 유표적 화제에 해당한다.

성이 없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적어의 좌측전위는 반드시 주어를 동사 뒤로 도치시킨다는 것과 이것이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견해는 Meyer-Hermann(1988)에 의해, 두 번째는 Morales de Walters(1982)에 의해 지지되었다. 특히 후자에 의하면 현대스페인어 좌측전위구문을 분석한 결과 주어도치가 발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확률은 50%대 50%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Hernanz y Brucart(1987)와 Fernández Soriano(1993)는 목적어를 포함한 기타 요소들의 화제화에서 주어의 위치가 화제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동사 앞에 나타나는 여러 예문을 제시하였다:

- (11) a. Del accidente que sucedió ayer, nadie quiere hablar.
- b. En Corea, las mujeres están maltratadas.
- c. Las acelgas María las detesta.
- d. La tarea, los alumnos deben acabarla en dos horas.

(11)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주어의 위치는 목적어의 화제화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다.⁵⁾ 이렇게 얻어진 현대스페인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목적어의 화제화와 관련한 주어의 위치가 중세스페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중세스페인어에서 목적어의 화제화

3-1. OVS 어순에 나타난 무표적 화제로서의 목적어

중세스페인어에서 OVS어순은 목적어가 지시사로 구성될 때 특히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은 목적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시사를 동반

5) 필자가 마드리드 거주 20명의 원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목적어나 부사(구)의 화제화에 관계없이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한 모든 구성성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12) a. a esta priessa corrien los moros.
 b. e aquel nombre mismo auie ell alcaçar que la penna.
 c. A este rey don Alfonso mientras que era pequenno criaron
 el conde Melend Gonçalo⁶⁾

지시사를 동반한 목적어가 규칙적으로 동사 앞에 온다는 사실과 동시에 주목할 점은 규칙적인 주어 후치 현상이다. 이것은 현대스페인어에서도 관찰되기는 하지만 현대스페인어의 OVS와 중세스페인어의 OVS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대스페인어에서 OVS는 초점화에만 해당하는 기능을 갖지만 중세스페인어에서 이 어순은 반드시 초점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지시사로 구성되는 목적어는 초점화되지 않고서도 동사 앞에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Crabb(1955)과 Hinojo Andrés(1988)는 중세 산문에서 지시사로 구성되는 목적어의 동사 앞 출현이 강조나 대조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순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Hinojo Andrés의 분석에 의하면 중세스페인어에서 지시사로 구성된 목적어의 동사 앞 출현 빈도는 8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OV 어순이 반드시 초점화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현대스페인어와 다른 점이다. 후자에서 목적어는 그것이 비록 지시사로 구성되었다 해도 초점이나 좌측전위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두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적어에 관한 중세와 현대의 차이점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 (13) a. *A aquel rey animó mucho el ángel. (현대스페인어)
 b. A aquello rrey animo much ell angel. (중세스페인어)

6) 본고에서 분석될 주요 텍스트는 la Primera Crónica General de España de Alfonso X (ed. de Ramón Menéndez Pidal, Madrid, Gredos, 1977)이다.

중세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강조나 대비의 기능을 띠지 않고서도 문두에 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OVS어순에서의 목적어는 초점이 아니라 화제로 고려되며 이 목적어를 필두로 구성되는 문장은 강조어순이 아니라 정상어순을 반영하였다. 또한 목적어가 반드시 지시사로 구성될 필요도 없다, 다음 예문에서 보게 되듯이, 오히려 지시사를 동반한 주어가 동사 뒤에 오고 동사 앞 목적어는 일반 명사로 구성되는데도 문장은 화제를 갖는 정상어순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적어의 의미적 속성에 구애받지 않고 화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화자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므로 문두에 출현하는 목적어는 반드시 지시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4) /All arcobispado de Narbona obedescan estos obispados que departiremos agora aqui desta guisa (289b, 16-18) / Otrossi cibdades muchas de tierra de Persia, gano las este et fizo las sus pecheras (278a, 14-17) / E las prouencias que so padre ganara por arma mantouo las este en paz et en derecho (204b, 39-41)

여기서 OVS 즉, clítico와 대응관계를 구성하지 않는 목적어가 화제로 기능하는 통사적 메카니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화제의 통사적 특성을 잠시 언급해 보면, 첫째, 화제는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무표, 유표가 된다.⁷⁾ 둘째, 화제는 자신이 서술되는 부분인 논평과는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한다. 이리하여 화제와 논평으로 구성된 문장은 (6)처럼 두 개의 독립된 발화체로 분리될 수 있다. 셋째, 주문장이라 부르는 논평부와 관련한 화제의 독립적 위상은 전자 내부에 존재하는 clítico에 의해 증명된다. 논평부는 clítico에 의해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9)-a에서 보듯이 화제는 의미

7) 화제 종류에 관해서 주석 (4)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적으로만 논평부와 간접적인 관련을 맺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인영(1996)의 “meta-enunciación”이란 용어는 이러한 화제의 독립적 위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려된다. 화제로서의 목적어가 clítico에 의해 통사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면 주어는 “pro”라는 가상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화제의 위상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OVS에 나타나는 목적어에 어떻게 독립적인 화제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구문에서 목적어는 화제로 기능하기는 하지만 논평부인 VS와 관련해서 문법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부사구나 부사절, 접속사 “que” 등의 부차적 요소들이 화제와 논평 사이에 삽입되는 문장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요소들이 화제와 논평부 사이에 삽입되는 현상은 중세스페인어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화제가 논평에 대해서 문법적 종속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OVS어순을 가진 문장 중 위에 언급된 요소들의 삽입이 이루어진 문장은 단 2개만이 발견되었다:

- (15) /A este rey don Alffonso mientras que era pequenno criaron el conde Melend Gonçalez de Gallizia et su mugier la condessa donna Mayor, (451b, 11-14) /et cuenta la estoria que este pleyto fizo don Alffonso al rey Almemon, et este mismo dize otrossi que fizo Almemon a don Alffonso, (503b, 25-28)

(15)에서 밑줄로 표시된 모든 요소들은 화제로서의 목적어를 논평부와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제 OVS에서 목적어가 현대스페인어에서 좌측전위구조를 통해 화제화한 목적어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6) a. Hercules, (pro) ouo sabor de ueer toda la tierra. (9b,4-7)

유표적화제

b. Hercules ouo sabor de ueer toda la tierra.

무표적화제

- (17) a. A Julia, su fija, no auie cosa por que la el tanto la
touiessse por fija

유표적화제

(116b, 51-52)

- b. A Julia, su fija, no auie cosa por que el tanto touiessse por fija.

무표적화제

(16)-a와 (17)-a에서 유표적 화제는 논평부와 의미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clítico나 elementos anafóricos 혹은 “pro”의 존재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16)-b와 (17)-b에서는 화제가 논평부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문장을 이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7)-b의 무표적 화제는 (17)-a의 유표적 화제와는 달리 화제의 독립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세스페인어에서는 화제로 기능하는 목적어가 clítico에 의해 반드시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출현 빈도수를 보면 OVS가 clítico에 의해 독립성을 확보한 목적어가 나타나는 좌측전위구문을 크게 앞서고 있다. 공시적으로 볼 때, 중세에서 목적어의 화제화는 유표, 무표적 두 개의 방법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주어위치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주어가 유표적 화제로 등장하거나(“Alfonso, ese rey uenció a los moros”) 무표적 화제(“Alfonso uenció a los moros”)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는 화제는 주어나 목적어 모두 동일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세스페인어에서의 목적어 화제화 현상은 13세기 이후 일어날 통사적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공존하고 있던 두 구조인 OVS와 좌측전위구문 중 변이형으로 취급되던 후자가 OVS의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면서 지배구조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어변화의 원인은 공시대 내에 존재하는 여러 변이형 중 하나가 기존의 지배구

조와 경쟁하는데서 비롯한다.

3-2. OVS 구문에 나타나는 목적어의 의미적 속성

중세스페인어에서 지시사로 구성되는 목적어가 문두에 규칙적으로 오는 원인은 지시사가 가진 문맥 연결적 가치(valor anafórico)에 기인한다. 화용적인 법칙에 의해 어순을 구성하는 언어에서 지시사 외에 구정보적(temático) 의미를 갖는 모든 요소가 문두에 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전 문맥에서 언급된 요소를 화제로 선택하면 문장 상호간의 연결적 측면만이 아니라 청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구정보적 가치를 갖는 “한정성”을 기준으로 이것이 얼마나 화제로서의 목적어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정성에 따라 분류된 화제로서의 목적어는 다음과 같다:

(18) /Todo lo que es destos terminos, que uos dixiemos, heredaron siete fijos de Japhet (5b, 17-19) /Bretanna poblo Brutho, (6a, 22-23) /ca ell otro medio auie el comido (13b,2b)

(19) /Cinco razones ponen los sabios (89b, 40) /e en la guerra de Iherusalem doze omnes armados mato el mismo en un dia de doze saetas que tiro.(138a, 23-25)

(20) /e tan grand sabor ouo este rey daprender los saberes (12b, 37-38) /mas tan grand sabor auie el de cantar (122a, 38-39)

(18)의 목적어는 한정명사, (19)에 나타난 목적어는 비한정 명사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20)의 목적어는 “tanto”, “tan” 등의 “강조사”(enfanzadores)를 동반하고 있다. 목적어를 어휘적으로 초점화하는

(20)을 제외하고 정상어순을 갖는 (18)과 (19)에 나타난 모든 문두 목적어는 화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로써 명사의 한정성의 유무가 화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 후치 또한 주어가 신정보적 또는 비한정적 명사로 구성된 것보다는 목적어의 화제화로 인해 단순히 통사적으로 유발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중세스페인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면이다. 목적어의 화제화와 부수적 효과인 주어도치 현상에 대해서 England(1993)는 중세의 여러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⁸⁾

“Whilst preceding direct objects and subject complements tend to coincide with subject postposition (79% with direct objects, 87% with subject complements), a following direct object or subject complement coincides usually with subject anteposition (77% with direct objects, 86% with subject complements); in other words the dominant orders are SVO and SVC, with OVS and CVS dominant in the smaller number of examples with preceding objects or complements”.

이렇게 중세스페인어에서 SVO와 OVS는 모두 정상어순을 반영하면서 번갈아 사용되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주어와 목적어 중 어느 것이 화제로 선택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21) /A la postremeria fue assi que los de la cibdad cogieron tamanna flaqueza en sos coraçones (49b,28-30) /et grant danno reçibieron otrosi ellos de piedras et de saetas (762a,4-5) /E los romanos entendieron esto (54b,14-15)

8) England가 분석한 13, 14세기 문헌은 다음과 같다: “Libro de Calila e Dimna”, “Libro de los engaños”, “Castigos e documentos”, “Libro de los gatos”, “El libro de los exenplos por A.B.C.”, “Espéculo de los legos”.

OVS의 빈번한 출현에 대한 Neumann(1996)의 발언은 주목할 만 하다

“[...] en la lengua medieval la posición preverbal podía ser ocupada con más frecuencia por un constituyente no-sujeto, fuera o no conocido en el contexto. Incluso cuando no era conocido, la frase no se convertía necesariamente en un enunciado marcado”.

다시 말하면, 현대스페인어와는 달리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통사적 규제가 중세에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주어만이 동사 앞 요소가 될 수 있음은 지론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세스페인어에서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구로 화제를 구성한 문장이 강조어순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⁹⁾ 마찬가지로 비한정 명사나 신정보를 나르는 명사로 이루어진 요소들의 문두 출현이 문장의 강조어순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없었다.¹⁰⁾ 그러므로 OVS 어순을 갖는 (18)~(20)에 제시된 모든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정짓는 일은 화제를 구성하는 명사의 의미적 속성을 통해서만 불가능하다. 지시사나 정관사를 동반한 목적어가 압도적으로 OVS어순을 갖는 현상은 전후 문맥을 연결하는 구정보의 가치에서 비롯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향성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중세스페인어에서 한정적 의미를 가진 목적어가 OVS를 형성하는 비율이 85.6%에 이르지만 그렇다고 비한정 목적어가 문두에 오는 OVS가 강조, 혹은 초점화된 문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세

9) Crabb(1955)은 중세불어에서 OV어순이 SVO와 함께 정상어순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OVS의 목적어는 강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후 문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으며 15세기에는 SVO만 남고 정상어순으로서의 OVS는 소멸되었다고 한다.

10) 일반적으로 한정명사는 구정보를 나르는 명사의 고유속성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학자에게서 구정보(tema)는 화제, 신정보(rema)는 논평과 동일시되지만 본고에서는 구정보를 화제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서술되는 대상”이라든가 무엇이든 — 단, 무한정 명사는 제외 — 발화의 출발점인 화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화제는 구정보나 신정보의 구분을 떠나서 선택되는 요소이다.

스페인어는 문두, 문미에 나타나는 요소들의 의미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주로 화제와 주어, 이 두 개념에 의해서 문장의 기능과 어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l tema delante del verbo y el rema después del verbo” 규칙은 중세스페인어에 관한 적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세스페인어에 관해 Elvira(1987)가 제안한 “TVX언어로서의 중세스페인어”는 T가 구정보가 아니라 화제로 이해될 때에만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중립적인 억양을 가진 문장에서 모든 문두 요소가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 내적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화제는 반드시 특정화(determinado)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화제를 구성하는 명사는 항상 형용사나 한정어 등에 의해 수식되어야 한다. 만약 무수식 명사가 화제 위치를 차지하면 비문이 발생한다: **Trenes llegaron*, **Libros tengo*, etc. 반대로 초점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서 “trenes”와 “libros”가 강조되면 적문으로 간주된다: *TRENES llegaron*, *LIBROS tengo*. 문제는 무수식 명사로 구성된 목적어가 화제 위치에 나타나는 예문이 13세기 문헌에서 소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22) /Mas pero non dubdo yo que piadat no ayan de mi los dioses (41b,7-8) /Parad mientes que desonrra et que mal nos a fecho el Cid (603b,13-14) / et azaz quexa me a dado estos dias uuestro hermano Ordonno (614a,42-43)

화제가 반드시 피수식된 명사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22)의 모든 문장은 초점화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능적 해석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13세기에 정관사체계가 아직 불완전했었고 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본 연구에서 초점화를 증명할 *entonación*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3-3. 유표적 화제로서의 목적어: “Obj., clit+Verbo”

OVS에 나타나는 무표적 화제와 달리 좌측전위구문은 유표적 화제를 갖는다. 그리고 이 전위구문은 현대스페인어에서 목적어의 화제화가 얻어지는 유일한 구문이다:

- (23) /e aun a los otros, maguer que ueyen que los podrien prender o matar, piedat derecha los otrnaua ende que los non podien ferir (231a, 48-51) /a la una dixieron donna Blasquita et a esta despues dexola el en su uida (444b, 29-30) /et a aquel non le quiso ya matar Roy Diaz mio Cid (503a, 21-22)

화자의 머리 속에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객체 즉 화제는 뒤따르는 담화인 논평을 위해 서술상 기초로 작용하며 논평은 바로 이 화제 위에서 형성된다. 그리하여 (23)에 인용된 모든 문장은 (24)처럼 두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

- (24) [[a aquel]화제 [non le quiso ya matar Roy Diaz]논평]

현대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중세스페인어에서 유표적 화제의 독립적 위상은 자신과 상응관계에 있는 clítico나 pronombre pleno의 존재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두 언어의 좌측전위 구문에서의 유일한 차이점은 주어도치 여부에 있다. 현대스페인어와 달리 중세에서 좌측전위된 목적어의 존재가 주어의 도치를 유발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이 현상은 OVS구문에서 주어도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상통한다.

- (25) /esto no lo faze Julio Cesar sino la su buena uentura et la mi malandança (91a, 9-11) /Todas estas costumbres malas

que uos auemos contadas, ouo las el de ninnez (123b, 43-45)
/et estas uillas diogelas Abenmahomad, que era estonçes
principe de los alaraues (720b, 12-14)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근거해 화제를 표시하는 방법 외에 논평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화제를 표시하는 다음의 방법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부사구나 접속사 “que”, 지배구문(frases subordinantes)의 삽입. 다음 (26)에서는 부사구가 목적어인 화제와 논평부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이들이 분리되고 있다:

(26) /Esta sancta uestidura que la Gloriosa dio a sant Alfonso,
pues que el murio, non la oso uestir ninguno, si non ell
arcobispo Siseberto (282a, 28-31) /Ca sabet que aquella
Carthago setaenta et dos annos la poblo la reyna Dido ante
que Roma fuesse poblada (214a, 49-51)

한편, 문법적 기능을 결여한 접속사 “que”의 삽입도 화제를 분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현상은 가장 중세적인 표현이다:

(27) /et esto que lo uiron todos (284a, 29) /ante prometie a los
suyos que a los que no fuessen caualleros et lo quisiessen
seer que los guisarie el et los armarie (80b, 16-19)

또한 지배구문이 화제와 논평을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Topic-raising”과 유사하다:

(28) /A Julia, su fija, no auie cosa por que la el tanto la touiesse
por fija (116b, 51-52) /Las marauillas de los llantos que las

gentes de la cibdat fazien, non es omne que lo podiesse contar (773b, 23-25)

좌측전위구문에서 화제화된 목적어는 동사의 논항이 아니며 이것은 (26)-(28)에서 다른 화제 표시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Rivero(1980)에 의하면 좌측전위구문에서의 목적어는 Sintagma Complementante 밖에서 기저 생성된 요소로서 강조나 대비를 위해 동사 앞으로 이동하는 유표적 초점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논평에 해당하는 주문장과 목적어의 관계는 “adjunción”이나 “meta-enunciación” 등의 용어로써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목적어는 논평이나 동사에 문법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외부에서 의미상으로서만 연결되어 문장에 대해 병렬 혹은 부가되어 있을 뿐이다. 이때 OVS어순에서 목적어의 화제로서의 위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어순을 가진 문장이 현대스페인어의 것이라면 목적어는 동사 앞으로 이동하여 초점화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치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논항으로서의 역할은 보존된다. 반대로 중세스페인어는 문두 목적어가 화제로 기능하는 정상어순으로 취급하며 특히 목적어가 지시사나 구정보적 의미를 띠때 OVS의 출현 빈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결과적으로 중세스페인어에서 OVS에서의 목적어를 동사의 논항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표적 화제와 동일하게 동사로부터 독립한 부가적 요소로 보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유표적 화제가 문장에 대해 비종속적인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화제의 독립적 위상이란 주어의 동사 앞 출현, 즉 SVO어순이 문법화되는 과정에 있는 현대스페인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장의 구조를 주어/동사라는 구조적 개념에 의해서 정의하는 현대스페인어와는 달리 화제/논평이라는 화용적 개념에 의해 문장을 구성했던 중세스페인어에 접근하는 방법은 현대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¹¹⁾

11) Vennemann(1974)이나 Elvira(1987)가 피력한 바대로 중세스페인어의 정상어

4. 중세불어의 OVS

오늘날 SVO로 어순을 체계화한 불어 또한 중세시대에는 OVS를 정상 어순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Crabb(1955)과 Rickard(1962)에 의해 제기되었다. 중세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지시사를 동반한 목적어의 동사 앞 출현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Rickard에 의하면 중세불어에서 OVS는 논리적 동기와 강조적 동기에 의해 구분된다고 한다. 신정보를 전달하는 주어를 동사 뒤에, 구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어를 동사 앞에 배열하는 것은 논리적 어순을 만드는 것이며 유표적 초점으로서의 목적어가 신/구정보와 무관하게 동사 앞에 배열되면 강조적 어순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중세시대에 두 언어에서 모두 OVS는 정상어순(Rickard의 용어로는 논리적 어순)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29)와 (30)에 제시된 중세스페인어와 중세불어를 비교해 보면 화제 중심의 어순에서 주어 중심의 어순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두 언어 모두에서 추적된다. 물론 공식적으로 두 언어의 어순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 차이는 진행속도의 차이일 뿐 변화의 방향은 동일하다.

(29) a. las sus fihas casastes uos.

b. las sus fihas, las casastes uos.

(30) a. Celle isle a toute desherité ung serpent qui y est.

b. Cet employé, le patron l'a chassé hier.¹²⁾

순은 “TVX”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OVS”, “SVO”, “Adverbio V...” 등은 모두가 “TVX”라는 점에서 정상어순을 나타낸다. 필자의 견해로는 화제인 목적어가 동사 앞에 출현하는 것은 Rivero와 Fontana가 주장한 것처럼 이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치주어와 동일하게 기저생성된 목적어가 무표적 화제 위치로 서서히 병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Juan, (pro) es hermoso” → “Juan es hermoso”

② “Eso, (pro) dijo Juan” → “Eso dijo Juan”

다시 말하면 두 언어에서 추적되는 목적어에 관한 통사적 변화는 OVS가 좌측전위 구문("Obj., clít+SV")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것을 목적어 이외의 문장의 모든 구성성분으로 확대해 보면 담화의 심리적 주어인 화제가 문두에 오는 어순(TVX)이 문장 구조적 주어가 문두에 오는 어순(SVO)으로 진행 중이고 현대스페인어에서 화제화를 담당하는 좌측전위구조는 주어와 화제가 동시에 문법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¹³⁾ 좌측전위는 주어 중심으로 구성된 통사규칙 내에서 화제를 부각시키므로 화제인 목적어의 존재가 어순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OVS에 비해서 문법화가 더욱 진척된 구조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를 통해서 우리는 중세스페인어에서 목적어가 화제화하는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화제화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objeto, verbo+clítico+sujeto"로 표현되는 좌측전위와 ② 무표적 화제로서의 목적어가 출현하는 OVS가 그들이다. 이 중 두번째 구조는 초점화를 배제할 경우 현대스페인어에서는 비문으로 간주되는데 이유는 이 언어에서 목적어의 화제화는 좌측전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두 구조의 비교를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어온 통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중세스페인어에서 무표적 화제를 갖는 OVS와 이에 대한 변이구조로서 유표적 화제를 갖는 좌측전위구문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모두 화제+논평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상어순을 반영한다. 이것은 유

12) Rickard, *ibid*: 2-9.

13) "El libro, Juan lo compró ayer" 같은 좌측전위구조는 문두에 위치한 유표적 화제와 문장 내부에서 동사 앞에 오는 주어의 공존을 유일하게 허용하는 구문이다. 화제의 존재가 주어 중심으로 구성된 문장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표적 화제만을 인정하는 현대스페인어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OVS는 중세스페인어 이전인 로망스어 성립시기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이보다 출현시기가 다소 늦은 좌측전위는 근대스페인어의 통사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현대스페인어는 화제의 존재유무가 주어 위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중세스페인어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중세스페인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은 화제와 주어이다.

마지막으로 중세스페인어의 OVS에서 목적어의 기능은 강조적 기능을 갖는 현대스페인어와는 달리 담화의 기점인 화제로 작용했고 이 화제의 존재가 바로 문장의 정상어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므로 중세에 OVS어순은 화제를 문두에 배열하는 화용적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SVO와 별 차이점이 없었다. 이것은 문두를 주어를 위한 자리로 문법화해 가는 현대스페인어와 근본적으로 변별되는 점이다.

참고문헌

- 이인영, 「주제와 화제: 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32호, 1996, 61-99.
- Adams, J. N., "A typological approach to Latin word order", *Indogermanische Forschungen*, LXXXI, 1976, 70-99.
- Crabb, D. M., *A comparative study of word order in Old Spanish and Old French Prose Work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érica, Washington, 1955
- Elvira G., J., "Enclisis pronominal y posición del verbo en español antiguo", *Epos*, III, 1987.
- England, J., "Subject position in Old Spanish Prose, 1250-1450", en *Hispanic linguistic studies in honour of F. W. Hodcroft*,

- D. Mackenzie y I. Michael (eds.), *The Dolphin Book*, Londres, 1993.
- Fernández S., O., "Sobre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Dicenda: Cuadernos de Filología Hispánica*, XI, 1993.
- Fontana, J. M., *Phrase structure and the syntax of clitics in the history of Spanish*,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 Gili y Gaya, S.,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1961.
- Givón, T., *Syntax: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Benjamins, Amsterdam, 1990.
- Greenberg, J. H.,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en *Universals of language*, J. H. Greenberg(ed.), The MIT Press, Massachussets, 1963.
- Hernanz, M. L. y J. M. Brucart, *La sintaxis*, Crítica, Barcelona, 1987.
- Hinojo Andrés, G., "Del orden de palabras en castellano medieval", en M. Ariza, A. Salvador y A. Viudas(eds.), *Actas del 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Arco, Madrid, 1988.
- Kim, H. S., "Posición del tópico en la estructura oracional del español", *Language Research* XXXIII, 1997.
- Lehmann, W. P., "A discussion of compound and word order", en Ch. N. Li(ed.),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75.
- Meyer-Hermann, R., "La posición del sujeto en español antiguo y moderno", en M. Ariza, A. Salvador y A. Viudas(eds.),

Actas del 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Arco, Madrid, 1988.

Morales de Walters, A., “La posición de sujeto en el español de Puerto Rico a la luz de la clase semántica verbal. La oposición Tema-Rema y el Tópico oracional”, *Lingüística Española Actual*, IV/1, 1982.

Neumann-Holzschuh, I., “Reflexiones acerca de una descripción funcional de la posición del sujeto en el español medieval”, en A. Alonso González(et. al.)(eds.), *Actas del 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Arco, Madrid, 1996.

Rickard, P., “The word order Object-Verb-Subject in Medieval French”,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962.

Rivero, M. L., “On left dislocation and topicalization in Spanish”, *Linguistic Inquiry*, XI, 1980.

Vennemann, Th., “Topics, subjects and word order: from SXV to SVX via TVX”, en J. M. Anderson y C. Jones(eds.), *Historical Linguistics: Syntax, morphology, internal and comparative reconstruction*, II, North-Holland, Amsterdam, 1974.

【Resemun】

El orden Objeto-Verbo-Sujeto en español medieval

Cho, Eun-Young

Departamento de la lengua y literatura española

Universidad de Seúl

En esta investigación, están examinadas las oraciones de topicalización de objeto en español medieval, que se presentarán en dos maneras: 1) la dislocación a la izquierda, 2) la estructura OVS, donde aparece el objeto como tópico no marcado. Esta última no es posible en español moderno si no está focalizado, puesto que la topicalización de objeto es posible sólo por el proceso de la dislocación a la izquierda. Al comparar las dos estructuras, podemos advertir el cambio sintáctico diacrónico: el objeto en OVS se considera como un tópico en español medieval, junto al objeto dislocado de la dislocación a la izquierda, que es el tópico marcado. El objeto de OVS es tratado como un elemento enfático o focalizado, no como un tópico, en español moderno. De ahí podemos deducir que la dislocación a la izquierda es la estructura renovada y modernizada, en comparación con el orden OVS, que pertenece a una etapa probablemente anterior a la Edad Media. Las posiciones de sujeto motivadas a causa de la existencia de tópico en posición inicial no se muestran alteradas en español moderno; en cambio, el tópico inicial supone la postposición de sujeto en español medieval. En una palabra, el orden OVS coincide fundamentalmente con el SVO en la Edad Media, puesto que los dos órdenes están representados en la sintaxis medieval al anteponer el tópico antes que ningún otro elemento.